

## ■ 순 방 ■

# 國史編纂委員會 圖書館

國史編纂委員會는 現在 西大門區 大峴洞에 위치하고 있다. 國史編纂委員會는 國史研究機關으로서 國史에 關한 史料를 廣範圍하게 調查 蒐集 整理하며 國史를 編纂하여 史料와 國史書籍을 刊行하고 있다.

圖書館은 三層廳舍中 一層全部를 차지하고 있는데 藏書는 國內唯一의 資料인 10萬餘 史料와 書籍이 所藏 되어 있어 名實 共히 特殊圖書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1. 沿革

國史編纂委員會는 8·15解放과 더불어 政府樹立前까지는 「國史館」이라 稱하다가 政府樹立後 文教部所管으로 되면서 國史編纂委員會로 職制가 改編되었고 현재 職員數는 委員과 正規 및 臨時職員이 90餘名에 이르고 있는데 圖書館職員은 館長 李鉉淙 主務司書 李俊杰 등 4人으로 構成되어 있다.

### 2. 藏 書

本 圖書館은 東書 100,030冊, 洋書 358冊, 總 100,388冊의 藏書를 所藏하고 있으며 藏書의 大部分이 歷史部分의 資料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다.

이를 國別 내지 種類別로 나누면 韓國圖書 11,927冊, 當委員會 刊行本 및 謄寫本 8,248冊, 日政時 中樞院圖書 5,136冊, 中國圖書 7,721冊, 日本圖書 1,334冊, 洋書 358冊, 對馬島宗家文書 55,741冊(古記錄類 5,177冊, 書契類 10,670通, 文書類 39,830通, 地圖類 34枚, 古書類 28枚, 書籍 2冊) 逐次刊行物 및 學術法 7,000冊, 新聞製本 779冊, 寫眞 2,202種, 地圖類 34枚, 古畫 28枚, 마이크로필름, 寫眞原版, 팜프렐, 其他, 9,566點



이 있다.

當委員會의 性格으로 보아 歷史資料는 어느 圖書館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앞으로도 계속 史料蒐集에 力點을 둘 것이다.

所藏된 10萬餘 藏書의 分類는 當委員會에서만 通用되고 있는 獨自의인 分類法에 의하였으나 이를 67年 專門職 司書가 擔當케 되면서부터 韓國十進分類法에 의한 分類整理를 하고 있다.

目録은 著者名目録과 書名目録을 쓰고 있다.

### 3. 特 性

本 圖書館은 國史編纂委員會의 目的인 國史編纂의 主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特殊한 專門資料를 廣範圍하게 調查 蒐集하고, 이 分野의 專門家를 利用對象으로 하는 專門化된 閉架式 圖書館이다.

所藏된 資料中에는 國內에서 唯一史料, 稀貴史料, 一般貴重史料 등이 있고, 對馬島宗家文書의 原本은 國內는 물론 日本等地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韓日兩國關係의 研究史料이다.

또한 開港後부터 1910년까지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은 日本에도 없는 唯一本으로서 日帝侵略, 韓末政界狀況 外勢侵入 角逐等を 研究할 수 있는 根本資料이다.

蒐集된 資料는 迅速하게 整理되어 研究編纂事業을 뒷받침하여 그 結實로서 當委員會 刊行本이 年次의으로 刊行되고 있다. 既刊圖書로는 朝鮮王朝實錄 49冊, 備邊司謄錄 28冊, 韓國史料叢書 16種 20餘冊, 高宗時代史, 3冊,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4冊, 資料大韓民國史 2冊, 韓國獨立運動史 5冊등이 이미 刊行되었으며 계속해서 進行되고 있다. 현재 承政院日記 78冊이 刊行되었고 계속 刊行中에 있다. 앞으로 叢書類를 계속 編纂하여 널리 普及할 것이다.

특히 國內에서 刊行되는 新聞 및 綜合誌, 學術誌, 史學專門誌등이 거의 모두 製本備置되었으며, 外國의 것도 史料價値가 있는 것은 調查購入하며 交換 寄贈을 통하여 資料로서 不足함이 없도록 特別한 配慮를 하고 있다.

圖書館 專屬으로 複寫用 마이크로 촬영기, 寫眞機, Reader機, 녹음機 및 擴大機가 있어 언제나 稀貴史料의 複寫가 容易하고 探訪複寫로서 資料入手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

本 圖書館은 國史 및 史學에 關한 資料의 Collection으로 特性을 이루고 있다.

### 4. 圖書館 事業計劃

特殊圖書館인만큼 圖書館事業이 바로 當委員會의 事業과 직결되므로 貴重史料 保存管理는 물론 民族遺産 (18 面に 계속)